

1995년도 학과평가 참가기

'95 경영·무역·회계 관련학과 평가에 참여하고서

옹세중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경영대학원장

1. 머리말

우리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들은 지난해 7월초 '95학년도 학과평가를 마치고 난 후 2학기에도 학부제 도입과 교수업적평가제 개정 문제로 상당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한편, 지난해 실시했던 '95학년도 학과평가에서는 요즈음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서 그 의미가 반감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느낀다.

이 글은 필자가 '94년 11월 경영계열 학과평가인정기준 개발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이후 평가체도 연구위원회의,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 평가, 평가보고서 작성 등 평가 업무에 참여하

면서 느꼈던 절과 겪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앞으로 평가관련 업무에 참여할 대학의 교직원과 대교협 등 관계기관의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까하여 쓴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주관이 되어 '92년부터 대학평가인정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지 4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대학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평가준비와 자체평가, 평가보고서 작성 등 실무상 필요한 노하우가 제대로 전수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여러 관계자가 쓸데없는 노력과 시간을 낭비함은 물론이고 때로는 평가종 마찰이나 감정 대립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이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평가인정기준 개발과 평가척도 개발

'94년 10월 4일 대교협에서 '95 학과 평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회의가 열렸다. 황일청(한국경영학회장), 조성하(한국회계학회장), 문철한(한국무역학회장) 외 6명의 경영계열학과 교수가 참석하였고 대교협의 구병립 사무총장, 이현청 소장, 강경석 평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다. 주된 논의사항은 평가대상 학교 선정문제와 학과평가 인정기준 개발 방향에 관한 것이었다. 이 자문회의가 열린 시기는 '94년 8월 22일에 개최된 대학평가기획 위원회의 결정과 제안에 따라 대학평가인정위원회가 8월 31일 대상학과를 경영학 계열 학과로 결정하고 이에 회계학과와 무역학과를 포함하도록 결정한 지 한 달여가 지난 후였다. 한 달여 동안 대교협이 각 대학에 평가대상 학과의 결정을 알린 후 회신을 받아본 결과, 지난 3년간의 이공계 학과평가 때와는 달리 학과명칭, 학과의 교육과정, 학위명칭 등이 다양해서 경영계열로 평가받기 곤란하다는 신청이 적지 않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는 것 이었다.

자문회의중 특히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무역학과의 평가문제였다. 무역학과는 경영계열로 볼 수 없으며 경영계열평가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무역학과도 경영계열에 속하며 당연히 평가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또 하나의 주요 문제는 계열평가의 의미와 그에 따르는 실무적인 업무의 복잡성에 관한 것이었다. 경영계열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무역학회에서는 거부감을 표시하였고, 27개 대학의 무역학과는 무역계열로 독립적인 평가를 받기 원한다는 것이었다. 결국은 무역학과 중 경영학보다는 경제학의 성격이 강한 학과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후에 명칭도 경영계열평가에서 경영·무역·회계관련 학과평가라는 긴 이름으로 바꾸는 것으로 타협되어 그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계열평가의 의미를 각 대학의 관련학과를 하나로 묶어 종합평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처럼 학과별로 평가 되어 그 결과를 종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한편, 나는 대교협에서 평가대상 학과의 유형과 학과수를 제시한 자료를 보고는 평가작업이 큰 부담이 되겠구나 생각하였다. 학과로는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를 비롯하여 경영정보학과,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 축산경영학과 및 수산·해운·항공·보험 경영학과 등 11개나 되고 학과수는 경영 97개, 회계 55개, 무역 73개 등 총 261개에 달하였다. 나중에 특수학과와 개방대, 야간학과만이 설치된 대학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94개 대학의 학부 218개 학과, 대학원 147개 학과로 줄긴 했으나 과거 3년간 실시했던 이공계 학과평가에 비하면 규모가 3배 이상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모든 평가항목에 대해서 학과별로 평가하기보다는 항목에 따라서는 계열을 묶어 평가하는 것이 부담도 줄이고 계열평가의 의미도 살릴 수 있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자문회의가 열린 지 한 달 후에 평가인정기준개발 연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연구위원회는 한양대학의 황일청 교수가 위원장이 되어 평가인정기준의 개발방향, 연구위원의 업무분담, 사업추진 일정 등을 논의하고 대교협 측에서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였다. 평가인정기준 개발방향은 대교협 측에서 계열평가 취지에 맞추어 개별학과의 특성과 더불어 계열학과 전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공통평가항목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과 지난 3년간 실시해 왔던 이공계 평가기준의 틀을 유지하되 시설·설비 영역의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 내용을 제시하였는데 위원들은 대체로 이에

동의하였다. 그밖의 중요한 논의사항 가운데는 경영대학원 등의 특수대학원 평가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평가대상 시기를 과거, 현재, 미래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회계학과와 무역학과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조직의 성과와 노력 및 과정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어 평가할지, 지방 및 소도시 대학의 불리한 점을 어떻게 감안해야 할지, 이공계 평가기준을 어느 정도 활용해야 할지 등의 문제가 있었다. 논의 끝에 경영대학원 평가를 추가하기 곤란하므로 평가에 일부만 반영하고,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사항을 포함하기로 하며, 회계·무역학과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유의하고, 지방·소도시의 특수한 사정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러한 기본방향은 이후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설정과 평가척도 개발에 반영되었으나, 지역적 특성 등에 대한 고려는 기준의 차등적용에 따르는 타당성 및 공정성 문제 때문에 기준개발에서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평가기준개발위원회의 작업은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계획보다 일정이 다소 늦어지긴 했으나 1월 하순경에 마무리되었다. 12월초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호텔에 묵으면서 피곤함을 잊은 채 세세한 부분까지 토론하며 평가기준작성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황일청 위원장의 철저하고 끈기있는 문제제기와 검토의 요구로 위원들이 쉽게 넘어갈 수가 없었다. '94년도 학과평가기준으로 사용했던 생물학계열 평가인정기준과 화학공학계열 기준이 참고되었으나, 일단은 경영학과에 맞는 기준을 개발하려고 노력했다. 경영계열 평가가 사회과학 계열로는 처음이고, 이공계와는 다른 여러 가지 특수사정이 있으며 평가대상 학과와 학교의 다양성이 커서 기준을 새로이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최종 성안된 평가기준은 기본틀로서 평가영역과 평가대상 항목은 이공계 평가기준과 거의

같으나 평가 소항목, 항목별 가중치, 평가기준의 기술내용은 크게 바뀌었다. 영역별 가중치는 생물·화공의 경우 시설·설비가 25%의 비중이 주어졌으나, 경영계열은 10%로 낮추어졌고 줄어든 15%의 비중이 교육목표, 교육과정, 학생, 행·재정 부문에 2·5%씩 가중되는 것으로 하였다. 학과별, 지역별 특성화에 대한 것은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항목의 설정과 문항의 기술에 유의하였다. 여러 위원들의 적지않은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어 작성된 평가기준이었으나, 후에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현지 방문평가를 하면서 용어의 모호성, 평가기준의 타당성과 평가의 객관성 등에 문제가 없지 않았다. 이것은 평가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며, 연구와 경험에 필요한 분야라는 견해와 관련된다. 대교협 연구진의 도움이 없이 교수들만으로 구성된 학회의 한 기구로는 정해진 시간 내에 평가작업을 마무리짓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자체평가 준비와 보고서 작성

평가가 있기 전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에서는 '91년 4월에 장기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었다. 발전계획 수립에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간한 잡지와 평가기준 및 평가편람 등이 큰 참고가 되었다. 교육목표 설정, 교육과정 개편, 학생지도, 교수 충원 및 연구, 시설, 재정 등에 관한 2000년까지의 목표를 설정하고 4년간 추진을 하고 있었던 때에 경영계열 평가발표가 나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았으나 평가준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컸다. 발표가 나자마자 긴급 교수회의를 소집하여 평가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준비업무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대학 당국에는 긴급 지원이 필요한 10여 가지의 사항을 전의하고 후속조치가 조속히 취

해지도록 촉구하였다. 그 가운데는 이미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경영관의 조기 완공, 교수 충원계획 일정의 변경과 조기 충원, 대학원생 확보 등이 있었다.

대교협의 평가편람이 도착되기 전까지는 그 동안 추진해왔던 사항들을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면서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평가연구위원회에서는 수집된 자료와 현황을 근거로 예비평가를 해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책수립과 이의 실천 방안을 논의하였다. 연구보고서의 작성은 2월부터 시작하였으나, 위원들은 시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본격적으로 보고서 작성 작업에 달려들지 않아 걱정이 되었다. 학기중에는 강의와 각종 회의 및 행정업무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가 기한 내에 완성될 수 있을지 초조해졌다. 3월로 들어서면서는 정기적인 회의를 갖기로 하고 보다 열심히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서로 독려하였다.

위원들은 모두 보직자이거나 보직 경험이 있는 교수들로 구성하였고, 각 위원마다 대학원생 한 명씩을 보조원으로 활용하도록 했으며, 교학과 사무직원은 자료수집과 지원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신학기에 들어서서도 발전계획 추진 및 평가를 대비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였다. 졸업생 품질보증교육, 무감독시험과 명예선언, 소학회 조직의 확대 등이 그것이다. 연구위원들은 3월 이후 빈번하게 밤 늦게까지 보고서를 집필하고 식사 때나 휴게실에서까지 자주 의견교환과 정보교환을 하였다. 5월로 들어서서는 교수들이 더욱 굳게 단합하여 열심히 일하였다. 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교수들이 홀륭히 팀워크를 이루어 혁신적으로 일하는 데 감명을 받았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정하였다. 첫째는 평가자가 서면평가를 할 때 일하기 쉽도록 체계를 꾸미는 것이고, 둘째는 평가기준과 요구하는 자료가 불분명하거나

모호할 때는 가능한 한 충실한 자료를 제시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며, 셋째는 보고서 내용에 일관성이 있게 하여 어떤 항목을 비교 검토하거나 기술내용과 자료가 일치되게 통일하고, 넷째는 불필요한 자료나 문서 등을 본 보고서에서 제외하고 보충자료는 별책으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후에 우리 대학을 평가한 어느 평가위원 한 분이 우리 보고서가 모범답안을 보고 쓴 것 같다는 평을 했다는 얘기를 들고 나는 보고서 작성의 기본 원칙을 잘 세웠구나 생각하였다.

나는 6월말부터 7월초까지 8개 대학의 학과 평가를 수행하였는데 평가보고서를 읽고 분석하면서 보고서 작성원칙을 잘 세운 다음,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떤 대학의 보고서는 내용이 너무 빈약하여 정성적인 평가항목에서는 보고서 내용만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서 현지에서 관련서류와 비치 자료 등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느라 힘들었다. 또 어떤 대학의 보고서는 같은 쪽에서도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서 학과간에, 자체평가위원회간에 정 보교류나 의사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었다. 어떤 보고서에는 좋은 점수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의도적으로 자료를 왜곡되게 제시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교수가 쓴 것이 아니라 학생이나 직원을 시켜 적당히 서둘러 쓴 것이 아닌가 여겨질 때도 있었다.

우리가 자체평가 연구보고서 작성은 진행하면서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은 나도 참가하여 개발한 평가편람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평가항목 설정의 의도와 중요성의 이해나 용어의 해석이 어려울 때도 있고 평가항목간의 상충성, 주요항목의 누락 등도 간혹 발견되어 대교협에 질의를 해야 할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평가인정기준이 개발되고 평가편람이 완성되면, 각 대학에 배포하고 각 대학의 자체평가 책임자들을 대상으

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보다 확실하게 평가기준을 전달하고 문의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보완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평가척도개발 연구위원회는 5월 중순 첫 모임을 갖고 척도개발에 대한 기본 방침을 정하고 2차에 걸친 회의 끝에 시안을 확정지었다. 나는 각 대학이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대교협에 제출하기 전이어서 각 위원이 자기 대학의 사정을 의식하여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쉽게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염려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였으며 모두 대승적으로 생각하고 협조하여 잘 처리되었다. 평가척도의 최종결정은 6월 중순에 있었던 평가위원 워크숍에서 위원회 안을 기초로 분과별 토의와 검토를 거친 후 전체회의에서 확정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여러 평가항목에서 위원회 안보다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모호한 기준과 척도를 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다듬어 후에 있었던 평가작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

4. 현지방문평가와 보고서 작성

나는 고려대학의 조성하 교수, 부산대학의 서근태 교수, 원광대학의 김창의 교수와 대교협의 정유석 선생과 함께 G조에 속하여 한남대를 비롯한 8개 대학을 평가하게 되었다. 평가작업은 10개팀 39명의 교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고 대교협에서도 10여 명의 연구원이 동행하면서 교통, 숙박, 진행, 업무조정 등의 지원을 하였다. 총 94개 대학이 평가대상이고 학사과정 218개 학과, 대학원 147개 학과로 한 평가팀이 8개 내지 12개 대학을, 학과수로는 대학원을 포함하여 30~40개를 평가하게 된 것이다. 우리 팀은 대전의 한남대를 시작으로 광주의 조선대, 전남대, 마산의 경남대,

창원의 창원대, 안성의 중앙대 제2캠퍼스, 서울의 중앙대 제1캠퍼스를 방문 평가하고 다시 대전으로 내려가 충남대를 마지막으로 현지방문평가를 마쳤다. 학기말이면 논문심사, 성적처리, 대학원 및 경영대학원 신입생 선발 등 업무가 산적해 있는 데다가 평가업무까지 겹치게 되니 일에 대한 압박감이 적지 않았다. 과거에 정부투자기관 평가에 3년간 참여하였고, 출연 연구소 평가 때도 참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쉬울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같은 분야의 학과를 평가한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었다.

보고서를 사전에 숙독한 다음, 예비평가를 하고 현지방문시 확인할 사항을 메모하느라면 때로는 시간이 모자라 잠도 제대로 못자고 다음 날까지 정신이 명할 때가 있어 쉬운 일은 아니었다. 다행히 2개교 내지 3개교 평가 후에는 하루씩 휴식을 취하도록 일정이 짜여져서 피로가 누적되지는 않았고, 평가대학과 대교협에서 숙박 및 교통 편의를 훌륭히 제공하여 불편은 없었다. 우리 팀의 교수들은 술을 외면하고 모두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어서 저녁식사가 끝나자마자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다음 날 평가대비를 하거나 쉬거나 하였다.

대학의 역사와 환경이 다른 만큼 대학마다 특색이 있어서 나는 평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배울 수 있었다. 총장, 학장 등 보직자의 역할, 대학의 분위기, 전문 시설, 교수진의 특징, 학과 운영방식 등은 물론 평가항목과 관련이 없거나 보고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현지방문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 현지방문평가가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현지방문 평가시 본인이나 같은 팀의 교수들이 공통적으로 거론하고 문제시했던 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교수들은 일정이 빽빽하여 시간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전에 정해진 일정

대로 진행하지 않고 장황하게 대학 소개를 하거나 의례적인 일로 시간낭비를 하거나 점심식사 시간을 길게 잡아 일할 시간을 빼앗는 것이다. 둘째, 평가에 대비한 사전 준비가 소홀한 점이다. 평가장소, 비치자료, 관련 교수의 참석, 요구 자료의 제출 등 평가위원이 효율적으로 신속히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게 지원되어야 한다. 셋째, 평가자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보고서의 기술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평가항목간에 기술이 일치되지 않거나, 누락되었거나, 오류가 있거나, 진실성이 의심되는 기술내용이 있으면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피평가자가 명백히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할 때면 화도 나고 감정을 상하게 될 때가 있다. 어떤 대학에서는 필자가 교수임용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자 하니 매우 난색을 표명하고 주저하여 입장이 난처하였다. 상대방은 필자가 무슨 잘못을 들추어 내려는가 오해를 한 모양으로 나중에는 서로의 의심이 풀리긴 했으나 기분은 썩 좋지 않았다. 넷째, 교수·직원·학생 등 많은 사람들이 평가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현지방문평가 때문에 관련된 교직원과 학생이 대기하고 있는 것까지는 좋으나, 각자가 연구실과 도서실, 행정실 등에서 할 일을 하다가 요청이 있을 때 면담에 응하거나 협조하면 될 것을 불필요하게 여러 사람이 평가장에 함께 나와 있을 때는 평가자가 미안하기도 하고 평가작업에 지장이 되기도 한다. 다섯째, 현지방문평가는 학기중에 해야 할 것이다. 평가교수의 동원이 문제가 되고 평가 대학에 부담이 있겠으나 실제의 강의 모습과 실습 광경, 교수들의 연구 모습, 각종 기자재의 가동상태 등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보고서를 기초로 서면으로 한 예비평가 결과는 현지방문평가를 통하여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으나, 여러 항목에서 평가점수가 변경되기도 하였다. 특히 정성적인 평가항목은 보고서의

기술내용만으로는 평가가 어려워 평가를 유보한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현장에서 관련 비치서류를 확인하고 면담을 통해 보완적인 정보를 얻은 다음 판단함으로써 평가에 객관성을 기할 수 있었다. 또한 현지방문시에 보완자료와 추가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여러 대학에서 팩스와 우편으로 신속히 자료를 보내주어 마지막 점검시 도움이 되었다.

평가·평정표의 작성은 서면평가와 현지방문 평가의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양식에 맞추어 하였는데, 오류가 없도록 몇 번씩 확인하느라 시간이 적지 않게 걸렸다. 평가위원들은 학과 평가 보고서 작성은 평가가 끝나자마자 기억이 생생할 때 작성하도록 워크숍 때 권유받았으나, 필자는 밀렸던 업무처리와 긴급히 해야 할 일들이 생겨 뒤로 미루었다가 학기중에 처리하려니 고생도 되고 시간도 많이 걸려 지침대로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다.

5. 제 언

나는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평가에 참여하면서 큰 보람도 느꼈으나, 한편으로 어려움도 겪었다.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의 지향해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볼 계기를 가질 수 있었고, 우리나라 대학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어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 아주대학 경영대학의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장래 발전전략을 검토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수확이었다. 그러나 평가일로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게 되어 진행중이던 연구나 학회 일이나 학교 업무처리에 애를 먹은 것도 사실이다.

10월초에는 J일보가 자체에서 실시한 대학 종합평가 결과와 경영학과 평가 상위 15개 대학의 순위를 게재하여 큰 당혹감과 좌절감을 느꼈다. 40명 가까운 평가교수와 대교협의 전문인력과 각 대학의 수많은 교수들이 고생하여

실시한 평가 결과는 발표가 안 되고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평가방법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실시한 언론사의 평가는 신문에 보도되어 훨씬 크고 엄청난 영향을 사회에 미쳤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교협 주관의 평가결과의 공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대학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 경영·무역·회계관련 학과평가는 어떻든 평가대상 대학의 발전과 운영개선에 매우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평가의 당위성과 더불어 현재 평가체제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평가는 매우 유익하고 필요하며 5년 정도의 주기를 두고 지속해야 할 것이다. 둘째, 모든 대학이 유사한 교육목표, 교육과정, 학생 지원, 운영방식을 갖고 있어 획일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국 AACBS의 평가방식처럼 각 대학의 사명과 특성화 목표를 중심으로 한 정성적 평가기준의 개발과 방식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평가과정에서 얻어진 각종자료, 각 대학의 우수사례, 유익한 경험 등을 공유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으면

한다. 넷째,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평가의 목적에 보다 충실히 하면 평가결과를 단일 점수화 하지 말고 영역별이나 항목별로 대학, 기업, 언론, 학부모 등 모든 관련자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학간에 평가와 관련하여 서로 배울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인적 교류와 정보 교류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학회가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학술연구에 대한 발표장으로서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학 운영개선과 교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토론의 장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

용세중/서울대학교 공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경영대학원,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에서 석사학위, 프랑스 그레노블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기술경영경제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중이고 경영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산업계 연구인력 현황 및 질적 평가에 대한 조사 연구", "중소기업 지원정책 체계와 도산 방지 공제제도", "R & D 부문과 생산부문간의 연계가 신제품 개발 및 생산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외 다수를 발표했다.